

# 전북 8월 소비자심리 3개월 만에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104.9로 전월보다 3.4p 하락... 경기·취업 전망도 악화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4.9로 전월 108.3보다 3.4p 하락했다.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106.8에서 104.5로 2.3p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웃돌면서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요 구성지수가 전

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와 가계 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3에서 90으로 3p 하락했고 생활형편전망CSI도 100에서 99로 1p 떨어졌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9에서 98로, 소비지출전망CSI는 111에서 108로 각각 하락했다.

경기에 대한 인식은 더욱 큰 폭으로 악화됐다. 현재경기판단CSI는 90에서 86으로 4p 떨어졌으며 향후경기전망CSI도 99에서 94로 5p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 역시 92에서 87로 5p 떨어져 고용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낮아졌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27에서 126으로 1p 하락했다.

가계의 저축과 부채에 대한 인식도 엇갈렸다. 현재가계저축CSI는 95에서 91로 4p 하락한 반면 가계저축전망CSI

는 94에서 96으로 2p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3에서 102로 1p 낮아졌고 가계부채전망CSI는 101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와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도 다소 완화됐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3에서 141로 2p, 주택가격전망CSI는 127에서 123으로 4p 각각 하락했다. 반면 임금수준전망CSI는 124에서 125로 1p 상승했다.

소비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외식비 전망은 97로 전월과 같았다. 의류비는 94에서 95로, 여행비는 97에서 98로, 의료·보건비는 111에서 112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내구재는 96에서 94로, 교육비는 99에서 98로, 교양·오락·문화비는 94에서 92로 떨어졌다. 교통·통신비는 107에서 104로, 주거비는 104에서

103으로 각각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6개 시·군 지역과 인접 읍·면 지역의 4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374가구가 응답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 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통계다.

개별 CSI가 100보다 크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거나 증가·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감소·하락을 예상하는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 결과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여전히 장기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전망, 취업기회 전망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상근 기자

## 어도 아름다움 · 중요성 알린다

농어촌공, 물고기 생태통로 '어도사진 · 쇼트폼 공모전'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물고기의 이동 통로인 어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모전을 연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제8회 어도사진 · 쇼트폼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도(魚道)는 보와 하굿둑, 수중보 등 인공 구조물로 단절된 하천에서 물고기가 상·하류를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한 생태통로다.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모전은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명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어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진 또는 60초 이내의 쇼트폼 영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쇼트폼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응모 범위가 확대



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은 영상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1월 접수 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모두 3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수여된다.

/오상근 기자

## 청년 농식품기업 성장 위한 소통 나서

맞춤형 토크콘서트 열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청년 농식품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지난 2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내 농식품 청년 창업자와 2세 경영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년 농식품기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과 사업화, 시장 진입 과정에서 청년 농식품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질의응답과 전문가 멘토링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내 농식품 청년 창업자와 2세 경영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년 농식품기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바이오진흥원의 청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지역 선배기업인 '지리산처럼' 정정은 대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정 대표는 초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과 이를 극복한 경험 등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6명이 참여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멘토링

을 진행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는 전북테크노파크 이용진 전문위원, 인사·노무 분야에는 노무법인한결 양성배 대표노무사, 유통·판로 분야에는 BGF리테일 박성욱 수석MD가 참여했다.

또 자금·투자 분야에서는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성종 총괄본부장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최재영 본부장이, 선배기업 멘토로는 지리산처럼 정정은 대표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망 입점 전략과 투자 유치 방안,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등 청년 기업인들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토크콘서트 이후에는 분야별 소그룹 심층 상담과 참석자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청년 기업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 중소기업 장기근속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

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4번지 일대에 건설 예정인 '전주 삼천 하늘재 라비엘'이다.

전북중기청이 추천하는 물량은 총 3세대이며,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59㎡ 2세대, 74㎡ 1세대다. 예비추천 물량은 15세대로 59㎡ 10세대, 74㎡ 5세대

다.

신청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6개월이 지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일반유형주택업, 무도유형주택업, 기타 주택업, 기타 사회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종합관리시스템의 '일련마당'에서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최고 연 4%' 씨드모아(카드우대) 통장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파킹통장 신상품을 선보인다.

전북은행은 개인 고객이 일상적인 카드 이용과 연계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씨드모아(카드우대) 통장'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씨드모아(카드우대) 통장은 쉼뱅크와 전북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면서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해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을 겨냥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